

유호연 신임 부군수 업무 본격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주민 실현에 일조할 것” 주요업무 보고·현안사업장 등 방문

무주군은 유호연(사진) 신임 부군수가 10월 21일자로 부임한 가운데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업장 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27일 시작된 보고회는 무주군 현안을 공유해 무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실천의지를 다져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회에는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 국장 및 실·과·소장, 팀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급성기 질환 어르신 한시적 요양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관련해 공유했으며 28일에는 관광진흥과 등 6개 부서에서 △무주 납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 △군민 맞춤형 평생 교육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농촌협약)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31일에는 기획실을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보건의료원 정례식장 시설 개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하수도 증설 및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유호연 부군수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반드시 챙기고 추진해야 하는 현안을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며 “무주가 무주다운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전

한 무주가 되어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로서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이 예산확보 등으로 분께도에 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무주북합문 화도서관 건립 현장을 비롯해 무주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장, 부남면 파크골프장·태권마을·동부권 입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7년에 공직에 입문한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도청 성과관리과 경영평가 팀장, 감사관실 회계감사·감사총괄 팀장 등을 거쳐 어린이 창의체험관장을 지냈으며 농업 분야(농업정책과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상향

장수군, 지원대상자·금액 확대 홍보 활동 실시

장수군이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확대 방편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잔액 및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사업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어 평균 지원단가가 1만 3,000원 올랐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를 받는 가구여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되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1인 세대 13만 7,200원에서 14만 8,100원 △2인 세대 18만 9,500원에서 20만 3,600원 △3인 세대 25만 8,900원에서 27만 8,0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 7,000원에서 37만 2,100원으로 변경됐다.

동절기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임업인 화합·소통의 장

11월 4일 '임업인 한마음대회' 의암공원서 개최

장수군은 '2022년 제1회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11월 4일 의암공원 메인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연기됐다가 확산세 감소에 따라 열렸으며, 장수군 임업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임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작목반별 단체 소속 임업인들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수군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주관하며,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수군 및 장수군산림조합이 후원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검사항목과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내의 임업인 및 임업 관련기관 1천여 명을 초대하고, 입산 및 임업

장비 홍보부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겠지만 장수군은 임야가 75%인 우리나라 대표 산촌지역이고, 오미자를 전국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오미자의 본고장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 소득 창출에 힘쓰는 이들의 숨은 업적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장수군 산림 분야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로컬JOB센터는 도농(都農)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 참여 농가와 구직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고생했습니데이(day)' 행사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고생했습니데이 행사 '눈길'

무주군로컬JOB센터는 도농(都農)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 참여 농가와 구직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고생했습니데이(day)' 행사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근로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지속적인 농촌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농촌일자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취지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무주지역 도농(都農)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 참여 농가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바쁜 농번기로 지친 참여 농가와 구직자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농작업을 진행하는 농가 및 구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농사일로 인해 지친 농가와 구직자들을 위로했다.

이자리에서 도농(都農)상생형 농촌일자리사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무주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도 관의 구직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농촌일자리사업 참여농가와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가와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이런 행사를 자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 품질 좋은 천마 품평회 열려

무주군이 지난 29일 천마가공식품 우수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한 무주천마품평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안성면체육공원에서 열린 천마 품평회는 작목반원을 비롯한 가공업체, 지역주민, 소비자, 그리고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김중훈 전북 경제부지사, 권의원, 윤정훈 전북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울퉁한 첫 번째 열린 품평회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날 품평회는 천마 주산지인 무주군에서 생산한 우수 천마 농산물 홍보와 판매, 우수천마 생산자 등 선발 및 포상으로 자긍심 고취와 천마 생산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품평회는 (사)무

주천마사업단이 주관했으며, (사)무주하늘천마농조조합이 주관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농악공연에 이어 개회식, 그리고 생천마와 천마음식에 대한 품평회, 천마 가공제품 전시 및 시음판매 등 천마 재배 포장 재현과 천마인 화합행사로 진행됐다.

품평회는 생천마 분야에 20여 농가, 천마음식(천마 도토리묵, 천마 삼계탕, 천마 해물과전 등) 분야 8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군은 앞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 생산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다양한 천마 가공제품 전시 판매로 소비 진작 및 수익창출을 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30년 이상 만년식당 지정

진안군이 전통과 맛을 모두 갖춘 만년식당을 지정하고 홍보에 나선다.

28일 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까지 진안군 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만년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에 최초 영업 신고 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은 48곳이다.

만년식당으로 지정되면 △만년식당 간판 부착 △점포를 통한 특화메뉴 및 식당운영 노하우 1:1 컨설팅 △지능형 IoT사업을 통한 우선검색 서비스 제공 △스토리텔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무주군이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유누리 서비스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는 인터넷체제(플랫폼)이다.

군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강당과 회의실, 주차장 등의 시설물은 물론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을 개방해 오고 있으며 향후 교육 및 강좌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자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공유누리 누리집 또는 공유누리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임인숙 팀장은 “무주군은 공공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정비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의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276건의 신청이 들어와 총 1,105필지(147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고, '인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권자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줬다.

신청 대상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토지 소재지에 상관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단, 190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잠자 등 호주승계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가 대상일 때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